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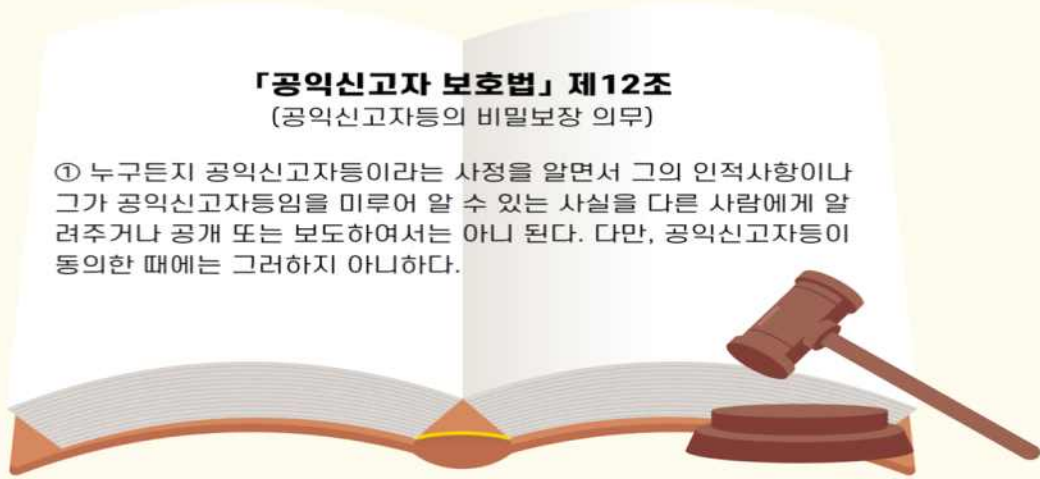
공익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교육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신고를 대리하는 안심변호사는
안심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또는



에 제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자 입증자료 및 위임장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

안심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교육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자문)변호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 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신고 수당 지원)

내부신고자는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 비실명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게시된 안심(자문)변호사 명단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